



김인환 / 정회원, TAS 건축사사무소  
by Kim, In-hwan, KIRA

약력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 전 서울건축사회 간사, 서울건축사신문 편집위원장 등 역임
- 한전공주지사 현상설계, 토지공사 제주지사, 지리산 콘도미니엄

## 이런 집을 지어보라!

Build a house like this!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

그 가운데서도 주택건설경기는 특히 어렵다. 예전에는 지어만 놓으면 팔렸는데 최근에는 미 분양주택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 비싼 분양가, 부동산관련 정책과 세금 그리고 주택수요가 한계에 다다른 것 등이 주요한 요인 같다. 그러나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집만을 짓는데다 시대변화에 순응하지는 않은 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열중하는 탓도 크다고 생각한다.

### 집이란...

원래 집이란 가족의 단란과 행복을 가꾸는 공간이다. 집을 삶을 즐기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 주는 공간이다. 그런데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주수단인 집이 이상하게 변질되었다. 본래 목적인 거주수단으로 보다는 부동산적인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즘사람들의 행태도 이상하지만 집을 짓는 건설회사는 더 이해할 수 없다. 요즘 건설 회사들은 지나치게 과장된 인테리어, 거창한 주택전시관과 호텔에 버금가는 집기 등으로 치장된 모델하우스,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외국어 이름(브랜드) 광고 등에 지나치게 열중하고 있다. 거기다 최근에는 우리의 정서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외국의 유명(?) 건축사가 설계했다는 것까지도 대문짝만하게 광고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살림하는 집에 그렇게나 중요한 것들인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쁘게 장식된 집이 보기에 좋기는 하다. 외국 건축사의 설계가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집은 호텔 등과 같은 거창한 건물이 아닌 살림하는 공간이다. 살림하는 집에 호텔과 같은 생소하기만한 이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더욱이 살림하는 집에는 호텔 등에서나 어울릴만한 지나친 인테리어나 집기로 치장하는 것 보다는 실용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외국인 건축사에게 맡겨야할 정도로 우리들의 생활이나 주거문화가 그렇게 이국적이지도 않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한국인들은 김치나 된장 등을 좋아하고 따뜻한 아랫목과 창호지 등 우리의 전통적인 것들을 그리워한다. 이 같이 한국인의 전통적인 정서와 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한국의 훌륭한 건축사가 설계한 집이 더 한국인에게 좋은 것은 당연지사다.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비용만큼 집 값을 낮추어 주거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미생활이나 건강을 배려해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

### 집도 변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은 개성을 강조하고 자신만의 취향을 추구하는 시대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오직 그 변화에 둔감한 곳이 우리들의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이다. 우리들은 그 동안 자신의 개성이나 가족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건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꾸미고, 설계하고, 만든 집에서 자신을 맞추어가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일방적이고 대중적인 집보다는 개개인의 취향과 가족의 특성

지나친 편리함이나 인테리어 등 보다는 가족의 단란과 행복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고려해주면 된다.  
 집에서나마 가족의 단란을 도모하고  
 삭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집을 짓는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우리의 집이 추구해야할 방향이라고 본다.

에 맞는 주문주택과 같은 집이 필요하다. 또 우리는 지나치게 편리함만 강조되고 인테리어라는 이름으로 치장된 집에만 익숙해 살아왔다. 이제는 우리의 집도 그런 형식적인 것 보다는 또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건축은 생활을 지배한다’. 이상하게 지은 집에서는 이상하게, 지나치게 치장된 집에서는 실용적이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경향과 개념에 순응할 수 있고 그런 욕구를 가진 소비자들을 리드하고 계도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한다. 아파트 생활자들의 대부분이 언젠가는 아파트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통계에 유의해야 한다. 지나치게 편리하기만 한 것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다. 지나치게 편리한 것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다. ‘진정한 건축은 약간의 불편함 가운데 느껴지는 만족’이라는 말이 있다. 약간은 부족하고 불편한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고 더 인간적이다. 특히 살림하는 집은 지나치게 더운 것 보다는 약간은 싸늘하고, 리모컨 등으로 가만히 앉아 모든 일을 하기보다는 직접 몸을 움직이고, 손수 가꾸는 가운데 즐거움을 주는 건축이 더 좋다. 최근에는 조망 좋은 고층아파트가 새롭게 인기를 끌고도 있는데 전망 좋은 것이나 편리한 것도 한 때다.

차라리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변화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집이 더 실용적이고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집이다. 그저 보기만 좋고 편하기만 하기 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집이 좋은 집이다. 그러한 건축이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고 사람 사는 맛을 나게 한다.

#### 생활을 리드하는 집

요즘은 삭막하다. 특히 가족 간의 사랑도 예전만 못하다. 예전에는 방한 칸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다보니 형제애나 가족 간의 우애가 두터웠다. 그런데 그 때보다 훨씬 좋은 주거환경에 사는 지금은 그때만 못하다. 오히려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요즘 집의 구조가 우리를 더 삭막하게 만든 것이다. 그렇잖아도 답답한 아파트에 각자의 방으로 구획되어 자기공간에만 틀어박혀있으니 얼굴 볼 시간도 대화할 기회도 없다. 도대체 부대끼 일도 없고 대화도 없으니 삭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가족끼리 같이 운동도 하고, 온 식구가 함께 새나 애완견 그리고 꽃과 텃밭 등 취미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집이 필요하다.

단지에 훌륭한 조경과 운동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제는 각자의 집에서도 자신만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특히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러한 집을 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나치게 부동산적인 것이나 편리함 특히 지나친 인테리어, 조망 등을 조금만 희생시키거나 새로운 차원의 설계를 하면 된다. 단독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에서도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나친 편리함이나 인테리어 등 보다는 가족의 단란과 행복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고려해주면 된다. 집에서나마 가족의 단란을 도모하고 삭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데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집을 짓는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우리의 집이 추구해야할 방향이라고 본다. ■